日, 불교 메타버스 '테라버스' 등장

교토대학, 불교 정신세계 표현
일어로 1조 · 사찰 뜻하는 'tera'
'법구경' 활용해 인공지능 탑재
불상 모양 '붓다봇'과 대화 가능

박영빈 객원기자


메타버스 세계에 등장한 불교 메타버스 '테라버스'의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야후 재팬 뉴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급성장한 온라인 가상세계 메타버스. 메타버스 세계에 불교 정신을 표현한 가상세계가 등장했다. 교토대학 등 연구팀은 불교 정신세계를 메타버스로 표현하는 '테라버스'를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9일 일본 '야후 재팬 뉴스'는 교토대학 발표를 인용해 가상세계에 등장한 불교에 대해 보도했다.

교토대학을 중심으로 AI 전문가들과 불교학자, 스님들이 모인 개발팀은 불교 메타버스 '테라버스'를 개발하고 첫 시제품인 '테라 플렛폼 AR'의 첫 번째 버전을 공개했다. 개발팀은 "테라버스에서는 불교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융합해 인간을 물리공간의 제약으로부터 해방하는 중층적인 정신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개발 의도를 전했다. 이름인 '테라' 역시 숫자 1조를 뜻하는 'Tera'와 일본어로 사찰을 뜻하는 단어 '테라'의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테라 플랫폼 AR'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현실 공간에 불교 AI의 아바타인 '붓다봇'을 불러올 수 있다. 불상 모습을 하고 있는 붓다봇은 대화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불교경전에 근거한 답변을 한다. AI 학습에 사용된 경전은 초기경전인 〈수타니파타〉와 〈법구경〉이다. 사용자가 질문을 하거나 고민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 중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대답해주는 이 AR 인공지능은 일상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도다. 개발에 참여한 쿠마가이 세이지 스님은 "많은 대중들이 불교에 접할 기회가 적어지고 있다"면서 "이 AR 앱을 통해 동네를 산책하면서도 상담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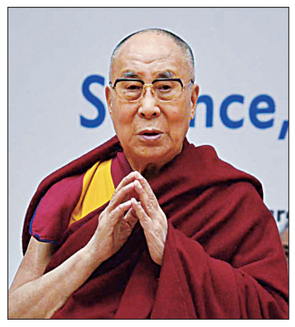
현재 계획상 테라 플랫폼 AR에는 스마트폰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위치정보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 사찰을 건립하고 참배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를 응용하면 현실공간에 있는 실제 사찰과 그 사원으로 등록된 사이버 공간을 동기화시켜 두 공간에서 동일한 행사를 진행하고 장소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도 있다.

개발팀은 "현재 일본의 많은 사찰들이 물리적인 건설이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VR이나 AR 등의 기술을 더욱 응용하면 장래에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이버 공간에서도 사찰을 건설 · 유지할 수 있다"면서 "특히 참배가 어려운 오지 등에 소재한 사찰의 경우 지리적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등, 각종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고 테라버스의 추가적인 개발 가능성을 전망했다.

현재 테라 플랫폼 AR을 비롯한 테라버스 세계는 당분간 메타버스 이벤트회장 등에서만 한정적으로 공개될 예정이지만, 추가적으로 어느 환경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은 학술적 이용과 모니터링 이용의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일반 공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개발팀은 밝혔다. 개발팀 측은 "테라버스 상에서 전개되는 불교 환경은 단순한 오락이나 유흥이 아닌 신앙의 대상이므로, 신중하게 취급하기 위해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달라이 라마, "英여왕 많은 사람에 영감"

찰스 3세에 애도 편지
왕실 · 국민에 조의 표해


달라이 라마. 사진출처=트리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14대 달라이 라마는 지난 9월 9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소식을 접한 후 여왕의 장남인 찰스 3세에게 편지를 보내 애도를 표했다.

달라이 라마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새 군주(찰스 3세)와 왕실, 영국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달라이 라마는 "내가 어렸을 때 잡지에서 여왕의 대관식 사진을 본 것을 기억한다"라고 회상하며 "영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임한 군주로서 그녀의 통치는 오늘날 살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와 영감, 그리고 안정적인 연속성을 보여줬다"라고 애도했다.

이어 찰스 3세 국왕에게 "당신의 어머니는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겨야 할 자질, 품위, 우아함, 강한 봉사 정신, 따뜻한 마음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셨다"라고 덧붙였다.

또 달라이 라마는 이튿날 영국의 국왕 자리에 오른 찰스 3세 국왕에게 축하 인사도 전했다. 달라이 라마는 "나는 당신이 친절과 애정으로 이 큰 책임을 완수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헌신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당신이 영국의 국왕 자리에 오른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 영국 국민의 희망과 염원을 실현하고 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70년 4개월 간 재위해 영국 내에서 최장 집권 국왕으로 기록됐다. 이전 기록은 63년 7개월 간 통치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증조할머니인 빅토리아 1세 여왕이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지구를 42바퀴 도는 엄청난 거리의 외교일정을 수행했으며, 1952년 즉위 이후 89세가 될 때까지 100개국 이상을 방문한 기록도 세웠다. 여왕의 재위 기간 임명된 영국 총리는 총 15명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도심 속 실버타운…복합시설로 재탄생한 日 사찰

인구 감소 상황서 장례 의존 탈피
지역사회 열린 사찰로 문호 개방


카페와 실버타운을 한데 모은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츠쿠다지마 분원. 사진출처=닛폰닷컴 뉴스

대중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 불교계에서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카페와 실버타운을 한 곳에 모은 사찰이 창건돼 화제다. 9월 7일, 일본의 '닛폰 닷컴 뉴스'는 복합시설로 탄생한 '츠쿠다지마 분원'에 대해 소개했다.

도쿄의 중심부, 인기 상점가인 츠키시마 몬쟈 스트리트의 입구에 세워진 '츠키지혼간지 츠쿠다 빌딩'. 일본 최대 종단으로 손꼽히는 정토진종 니시혼간지파의 도쿄별원인 츠키지혼간지(築地本願寺)가 최근 건설한 빌딩으로, 건물이 입지한 츠쿠다지마 지구의 공식분원으로 건립됐다.

츠키지혼간지 측은 "츠쿠다지마 분원은 그 역사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1930년대에는 종단의 공식 포교원으로 오랫동안 불자들의 구심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도심 포교의 거점이자, 포교활동의 확대를 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게 됐다"며 새롭게 건립된 분원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 1일 공식 개원한 츠쿠다지마 분원은 지상 9층, 지하 1층의 규모로 건설됐다. 법당은 2층에 만들어졌으며 최대 80여 명을 수용한다. 1층에는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카페와 함께 수유실과 공중화장실을 대중에게 개방했다. 3층부터는 실버타운과 사무동이 들어오면서 일반적인 사찰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했다.

츠키지혼간지의 부종무장인 히가시모리 쇼닌 스님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에서 장례식과 무덤에만 의존한다면, 절이 존속해 나가기 어렵다"면서 "이미 장례불교라고 일본불교가 야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불교가 직접적으로 공헌하며 '살아있는 유대와 인연'을 목표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새로운 분원의 목적을 전했다. 2층 법당에 모셔진 본존불도 30년대에 세워졌던 포교원의 불상을 그대로 재봉안하면서 오랜 세월 지역과 함께 했던 분원의 역사성도 그대로 살렸다.

츠쿠다지마 분원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은 스님이 상주하며 입주한 노인의 이야기를 듣거나 가족상담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1층의 카페에서는 불교의 스토리텔링을 담은 식사와 음료를 제공한다. 카페는 실버타운을 방문한 가족과 입주자의 면회장소로도 활용 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와 지역에 열린 사찰로 문호를 개방한다.

분원측은 "실버타운은 이미 20실 이상의 입주 검토가 진행 중이며, 카페의 경우 이미 매일 아침 한정 메뉴를 위해 장사진을 서는 등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사찰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녹아 들고 있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하와이 日사찰, 신도수 급감에 폐쇄 위기

고령화 등에 신도 수 15명 불과
외국인 신도 유치 등 변화 도모



사진출처=Civilbeat.org

하와이 라나이 섬에 위치한 97년 된 일본 정토진종 사찰이 최근 신도 수 급감으로 고민이 크다. 이대로 신도 수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강제 폐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한 사찰이 아닌 하와이 전역 사찰에서 겪고 있는 문제여서 불교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는 9월 8일 "라나이 섬에 있는 라나이 홍완지 사찰(Lanai Hongwanji Mission)의 현재 공식 신도는 15명이다. 그러나 정기법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는 훨씬 적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이러한 신도 수 급감의 원인으로 △일본인 신도 대부분인 기성세대의 고령화 및 사망 △신도들의 타 섬으로의 이주 △젊은 세대들의 무종교화 등을 꼽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라나이 홍완지 사찰은 최근 다양한 인종의 신도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전통적으로 라나이 홍완지 사찰의 신도들은 일본인들이 주를 이뤘으나, 일본인 신도들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라나이 홍완지 정기법회의 지도 스님을 맡고 있는 신카이 무라카미 스님도 "신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일본 사찰'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동체의 사찰로서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토진종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하와이에 있는 정토진종 사찰은 32개, 신도 수는 약 4300명이다. 정토진종은 신도 수 감소에 따라 일부 사찰을 합병 또는 폐쇄해 왔다. 박정현 객원기자



